

전북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78건 선정

내년도 6개 분야 사업비 1520억원 확보 사상 최대 농촌 공간 효율적 개발 농업인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19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개발분야 신규지구 공모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78개지구가 선정돼 15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공간을 효율적이고 입체적으로 개발해 어디서든 기초생활 서비스를 누리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전북도가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6개 분야 78개 지구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1개소 240억원 ▲기초생활거점 23개소 924억원 ▲마을만들기사업 39개소 220억원 ▲시군역량강화 10개소 33억 원 ▲농촌다움 복원 4개소 80억원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1개소 23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거점, 농촌다움 복원, 공공임대주택 등 3개 분야는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신규 공모사업이다.

특히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무분별한 도시화와 농촌지역 난개발을 막고 공익적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창의적 사업으로 주거 취약계층에 주거 공간 및 의료·복지시설을 제공하는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시범사업에 장수군이 선정돼 장수읍 두산리에 23억원이 투입되는 임대주택 20세대가 건축된다.

또 기초생활거점사업은 면 소재지가 일상적 서비스 공급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으로 23개소에 924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앞서 전북도는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에서 83개 사업을 신청했으며 최종 선정된

78개 사업 가운데 순창군이 14개 사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장수군 11개, 남원시 9개, 익산시 8개 등이 선정됐다.

이번에 진안군 7개, 정읍시와 무주군, 임실군이 각각 5개, 고창군 4개, 군산시와 부안군이 각 2개, 완주군 1개 사업 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에 역대 최대 규모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은 행정과 마을 주민이 협력해 얻어낸 결과"라며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주민들이 생활편의와 복지혜택을 직접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북도, 익산 전국체전 성화봉 공개

전북도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를 앞두고 세계 최초로 탄소융합 소재로 제작한 성화봉(사진)을 공개했다.

탄소융합 성화봉은 전국체전 주 개최지인 익산을 모티브로 시화인 국화와 미륵사지 석탑 형태를 새겼다. 주재료는 알루미늄 합금이며, 주자가 손에 쥐는 핸들은 탄소섬유를 사용해 무게를 절반 가까이 줄였다.

성화봉은 지난 5월부터 4개월 동안 국내 유일 탄소 전문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이오스디자인이 손잡고 만들었다.

도는 다음 달 연말이 열리는 양대체전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벽을 허무는 '대국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 배려한 성화봉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호 전국체전준비단장은 "탄소융합 성화봉은 전북 핵심산업인 탄소산업을 대외에 알릴 기회이자,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99회 전국체전은 다음 달 12일부터 18일까지, 장애인체육대회는 다음 달 25일부터 29일까지 전북 14개 시군에서 각각 열린다.

성화는 다음 달 3일 강화도 마니산 정상에서 채화해 8일부터 도내 곳곳을 달리며 전국체전 분위기를 달군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국유림 내 임도 개방 추석 앞두고 한시적 서부지방산림청정읍관리소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추석을 앞두고 성묘객들을 위해 전북 서부지역 국유림 내 임도 128km를 다음달 10월12일까지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개방한다.

이번에 개방하는 임도는 정읍시 19km, 고창군 11km, 순창군 45km, 완주군 53km 등 모두 4개 지역이다. 국유림 내 임도는 산림보호와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시설로 평소에는 산불과 임산물 무단채취 등을 예방하기 위해 통행이 제한되고 있으나, 추석을 맞아 성묘객 편의를 위해 한 달 동안 임시 개방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묘 시 주변 산림을 훼손하거나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채취 및 약용식물, 희귀식물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기태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임도는 산림 안에 있는 산림기반시설을 도로로 노퍽이 협소하고 급커브 구간도 많으며 태풍 및 집중호우로 노면에 낙석 등이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성묘객들의 차량운행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지난 7일 이환주(왼쪽에서 다섯번째) 남원시장과 이유미 국립수목원장 등 관계자들이 남원시청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 친환경 화장품산업 '탄력'

국립수목원과 업무협약...산림생물자원 활용 소재 개발

남원시가 중·장기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친환경 화장품산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10일 남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내 최고의 산림생물 종 연구기관인 국립수목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산림생물자원을 화장품산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우리 식물자원에 기반한 한류 화장품의 핵심 소재와 원료의 발굴과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롤 모델이 되고자 하는 남원시로서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산림생물자원의 화장품 원료 연구와 산업화를 위한 든든한 파트너를 얻게된 셈이다.

시는 앞서 생물 다양성에 관한 협약 부

속합의서인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남원시 출연기관인 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와 국립수목원 유용식물증식센터 실무 전문가들 간의 교류를 이어 오고 있다.

시는 국립수목원이 산림식물자원의 연구와 보전, 이를 활용한 가치 창출에 힘을 쏟고 있는 기관인 만큼 이번 협약으로 국립수목원 유용식물증식센터가 보유한 자원의 재배증식기술의 농가 보급을 통해 재배기술을 고도화하고 산업적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식물분류 분야에서의 전문 인력에 대한 협조도 원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주민 의견 균형 반영 고창군, 정책아이디어 공모

고창군은 주민 의견을 균형에 반영해 지역발전은 꾀하기 위해 '균정발전 정책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주민의 균형 참여 확대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균정발전 정책아이디어 제안공모는 재외군민을 포함한 지역 발전에 관심 있는 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분야는 민선7기의 균형추진 방향의 핵심 키워드인 농·수·축산업 및 식품산업 활성화와 역사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다.

응모는 오는 11월 2일까지 고창군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우편·방문접수 하면 된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kwangju.co.kr

전북컨벤션센터 건립지 전주종합경기장 최적

전주종합경기장이 전북형 마이스(MICE)산업의 핵심인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최적지로 분석됐다.

이는 전북도가 지난해 11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한 용역(전북형 마이스산업 육성 종합 플랜) 결과다.

입지 타당성과 접근 편리성, 부지규모 등 5개 평가 항목에서 전주종합경기장은 총점 0.588로 대한방직부지(0.538), 완주이서 농생명센터(0.241), 전북금융센터 부지(0.271)보다 월등히 높았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그동안 후보지 6곳을 대상으로 검토했으나 전시컨벤션센터는 도시 외곽보다는 도심에서 호텔, 쇼핑몰, 공연장, 박물관 등과 밀접시켜야 직접효과가 크다는 분석이 도출됐다.

전주종합경기장은 배후도시인 전주의 기존 상권, 인프라가 조성돼 있어 컨벤션센터의 기능을 다각화해 활용도를 높일 경우 도시재생과 함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또 전북에 적합한 전시컨벤션센터로는 광주의 김대중컨벤션센터와 비슷한 2천명 수용 규모의 컨벤션센터(약 1만5000㎡)가 현실적이고 형태도 공연과 스포츠 행사 등을 할 수 있는 아레나형(다목적홀)이 유리한 것으로 검토됐다.

이러한 국제행사 발굴과 육성, 지원 사업을 종합할 조직을 도청 산하 전북문화관광재단에 설치하고 이후 지방관광공사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제시됐다.

도는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전북형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해 5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2023년까지 전국 대내 국제회의 개최실적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 전북형 마이스 콘텐트 발굴과 마이스 유치홍보, 국내외 교류협력, 마이스 인력 양성 등의 세부 실행계획을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군산시 '안심 상속원스톱서비스 이용하세요'

군산시가 사망자의 재산을 통합으로 조회할 수 있는 '안심 상속원스톱 서비스' 이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10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사망신고와 함께 고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제·지방세, 연금(국민,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 재산을 한 번에 조회·신청할 수 있다.

신청지역은 제1·2·3순위 상속인, 대습 상속인 순으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1·2순위 상속인은 온라인(정부 24, http://

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건축물정보는 접수 당일, 지방세·토지정보는 신청 후 7일 이내, 국제·금융·국민연금 등은 20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문용목 군산시 민원봉사과장은 "개선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빈틈없이 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기섭 기자 nogusu@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시66주년

투자자 모심

- V 지역 - 경기도 양평
- V 투자금 - 3억원 이상
- V 수익 - 월15% 이상
- V 기간 - 1년6개월 정도
- V 보장 - 근저당/소유권 이전

문의. 010-3605-5000

펜션·가든 부지매매

- ▶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 ▶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 ▶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 ▶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 ▶ 장성 편백숲 5분거리
- ▶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TWIN STEEL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